



- 환경부 환경신기술, 기술표준원 신제품(NEP)인증업체 다수 참가, 2,000여점의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(21개국 253업체참가)
- 동남아, 중국, 중동부유럽 등 해외바이어 초청·수출상담회 동시 개최로 환경산업 수출화에 기여
- 다양한 부대행사로 볼거리 풍성..., 환경축제의 장 마련

편집부

국내 최대 규모 환경비즈니스 및 마케팅의 장인 『제28회 국제환경기술전(ENVEX2006)』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 에서 총 21개국 253업체(국내 : 172, 국외 : 81)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지난 6월 16일 막을 내렸다.

국제환경기술전(ENVEX)은 정부의「환경산업 육성」 취지 하에 선진 환경기술의 국내 도입은 물론 국내 우수 신기술의 해외 진출에 크게 기여해 온 대표적인 환경전시회로 환경보전협회(회장 손경식)에서 매년「환경의 날」을 기념하여 개최해 오고 있다. 이번 전시회에서는 환경부 및 기술표준원의 인증을 받은 환경신기술과 신제품(NEP)등을 포함해 2,000여점의 전시품이 소개되었다. 주유기서 날라가는 기름 잡는 유증기 회

수시스템, 저공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LPG차량, 태양열을 실생활에 적용시킨 태양열 가로등, 가구와 벽지 등의 오염물질을 중화시키는 새집증후군 차단제, 자연식생 생태복원 기술, 자연표토복원공법, 중대형 막분리고도정수처리시스템, 상수관망의 최적설계 및 수질관리 기술 등 새롭게 개발된 첨단 기술이 많이 선보였다.

과년도와 비교하여 올해는 최근 실내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공기질 관리분야와 환경생태복원분야,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한 에너지 분야의 출품이 늘어나 환경산업의 흐름이 설비제작 등 하드웨어에서 복원, 진단 및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분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.



또한 동 행사기간 중 국제환경기술세미나,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기술세미나를 비롯하여 해외환경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,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세미나 발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포스터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. 아울러 국제환경기술전은 산업자원부로부터 3년 연속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으로 중국, 일본, 인도네시아, 폴란드 등 해외바이어 134명을 초청하여 우리의 환경기술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산업 해외진출의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.

매년 공무원, 바이어 등 실질적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,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동시개최로 해외 참가업체, 해외바이어수도 늘어났다. 해외바이어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공무원, 학계, 업계, 연구계 등 우리나라 환경관련 분야 종사자 47,194명이 전시장을 참관한 것으로 집계되어 작년대비 참관객이 약 8.6%

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전시기간 중 참가업체들의 상담액과 계약액을 살펴보면 상담액이 5,760억원(2005년도 : 2,050억원), 계약추진액이 1,410억원(2005년도 : 710억원)에 이르러 상담액 및 계약액이 작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이번 전시회가 참가업체들의 신제품 홍보 및 제품판매에 커다란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. 이번 전시회의 참가국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면, 총 21개국 중 국내업체는 172개, 외국업체는 81개사가 참가를 하였다. 참고로 대륙별 참가를 보면 아시아는 일본, 북미는 미국, 유럽은 독일, 프랑스 등의 순으로 대부분 선진국의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<표-1 참조>

또한 출품물 동향을 살펴보면, 전체적으로는 수질분야가 44.7%로 가장 많고, 측정/분석기분야 16.2%, 대기분야 11.4% 순으로 나타났다. <표-2 참조>

<표-1> 국가별 참가업체수

참가국	한국	일본	미국	독일	프랑스	네델란드	덴마크	호주	벨기에	이탈리아	스위스	캐나다	중국	오스트리아	영국	대만	EU	아일랜드	러시아	스페인	핀란드
총계	172	18	17	12	5	4	4	3	3	3	2	1	1	1	1	1	1	1	1	1	1

<표-2> 분야별 출품현황

출품분야	수질분야		대기분야		폐기물분야		소음진동분야	환경복원	측정/분석기분야	음식물처리분야	친환경에너지	환경서적	환경컨설팅	친환경상품	기타
	처리시스템	장비 및 부품	처리시스템	장비 및 부품	처리시스템	재활용									
253	44 (17.4%)	69 (27.3%)	18 (7.1%)	11 (4.3%)	10 (3.9%)	4 (1.5%)	1 (0.3%)	7 (2.9%)	41 (16.2%)	4 (1.5%)	6 (2.6%)	4 (1.5%)	1 (0.3%)	9 (3.8%)	24 (9.4%)

전시 참여업체의 대부분이 관람객이 많아 자사의 제품과 기술을 열심히 설명하느라 거의 쉬지도 못했다며 만족감을 표했으며, 참가업체들의 90%가 내년 전시회 참가의사를 밝혀 전시회가 실질적인 구매 및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

내년 제29회 국제환경기술전(ENVEX2007 : 2007. 6. 11- 14, 코엑스 태평양홀)은 한 차원 성숙된 모습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협회 임직원들은 더욱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환경

산업 수출 촉진을 위해 협회 주관으로 네델란드 아쿠아텍2006(9.26-9.29), 중국 상해국제공업박람회(11.1-11.5) 등 해외전시회에 참가하여 한국관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, 향후 지속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환경무역증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국제환경기술전시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<http://www.envex.or.kr>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

전시명	네델란드 아쿠아텍 2006 (AQUATECH AMSTERDAM 2006)	중국상해국제공업박람회 (Shanghai International industry fair 2006)
구분		
개최기간	2006. 9. 26 ~ 9. 29	2006. 11. 1 ~ 11. 5
장소	Amsterdam RAI Exhibition and Conference Centre	상해신국제전람센터
개최규모	42,225㎡	85,500㎡
전시품목	수처리시설 및 관련부품, 가정, 산업용 급수 설비, 정수기, 연수기, 상하수도 분야 밸브, 수질관련 계측기	수질, 대기, 폐기물 등 환경관련 전분야
관람예상인원	25,000명(전문바이어)	300,000명(일반관람객포함)
과년도 전시현황	전시업체수 : 830업체 전문바이어 : 22,009명	전시업체수 : 1,306업체 참관인 : 220,000명
한국관 참가규모	14업체168㎡	12업체(108㎡)
행사주관	환경보전협회	환경보전협회
참가업체 지원사항	참가비 등 일부 국고 보조	참가비 등 일부 국고 보조
주요 활동사항	-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관 설치·운영 -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, 환경설비·기술·제품 홍보 및 바이어 상담 - 양국간의 환경산업의 기술교류 확대 및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환경기술 세미나 발표	

※ 참가문의 : 환경보전협회 기획사업부 ☎ 02-2249-5265 교환 613, 629 담당 : 정보영, 김창수